

법은 정의로운가? ...파산 변호사의 사법체제 고발장

자연된 정의

박상규·박준영 지음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헌법 12조7항’과 ‘형사소송법 3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이다. 하지만 한국현실 속에서 이런 법규는 무시되기도 한다. 무고한 한 시민이 경찰조사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자백을 한다. 검사는 ‘진범’이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법원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결국 시민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우리 시대 법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경찰의 위법 수사와 법원의 오판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오마이뉴스에서 활동하던 박상규 기자가 박 변호사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현장감 있게 기록했다.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원주경찰은 같은 동네에 살던 지적장애인 2명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증거도 없이 이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다. 18~20세였던 ‘가짜 살인범’ 3인조는 억울하게도 3년6개월에서 5년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사건을 지휘한 검사는 나중에 ‘진범’이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시해버린다. 법원이 재심을 거쳐 삼례 3인조에게 무죄를 선고한 때는 사건발생 후 17년이 지난 올 6월이었다.

이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박 기사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 박 변호사의 변론은 거기서 출발했고, 다시 거기로 향했다. 박 변호사는 그걸로 싸웠고, 그걸로 이겼다”고 기록했다. 2000년 8월 발생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익산경찰은 사건의 목격자인 15세 소년을 범인으로 체포했다. 소년은 함소심에서 10년형이 선고됐으나 “상고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자포자기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박 변호사의 호소에 재판부도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가 좌천당했던 노장 형사

의 ‘사명감’이 힘을 보탤다.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국 사법역사에서 처음으로 복역중인 무기수의 재심을 결정한 김신혜 사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법은 정의로운가? 박 변호사는 사법체제 속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찰과 검찰, 법원, 진범과 싸웠다. ‘스토리펀딩’에 실시일반한 네티즌들도 그를 응원한다. 이 책은 한 변호사의 고전분투기가 아니라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한국 사법체제에 대한 고발장이기도 하다. <후마니타스·1만 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삼페인 친구=아멜리 노통브의 스물세 번째 소설, 30세의 젊은 작가 아멜리 노통브가 사인회에서 만나게 된 페트로니우 광토라는 여성 팬과의 우정을 그렸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페트로니우는 그동안 집필한 원고들을 노통브에게 보여 주고, 두 사람은 문학과 삼페인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며 꾸준히 어울린다. 어느새 작가가 된 페트로니우와 노통브 사이에 경쟁 구도가 생기고, 페트로니우의 태도가 이상해지며 두 친구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다. <열린책들·1만1800원>

▲감은 눈이 내 얼굴을=안태운 시인의 첫 시집. 액체처럼 유연하게 읽히는 문장들과 그 문장으로 짜여진 시집 전체가 지니는 견고함이 상반된 놀라움을 선사한다. 첫 시부터 마지막 시까지 막힘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 같다. 안태운의 시는 수면 위의 잔잔함과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에너지를 포괄한다. 수면 아래가 궁금해 자꾸만 그 물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힘, 그것이 시인이 보여 주는 첫 세계다. <민음사·9000원>

▲명리 인문학=프랑스인 인문학수원 명리학과 교장이자 철학박사인 전영일 교장이 알기 쉽게 풀어 쓴 명리학 해설서. 명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사와 세속의 관점에서 해석한 명리학 이론이 담겨 있다. 명리학이란 사주팔자로 인생의 길흉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단순히 점을 쳐 개인인의 앞날을 예지하는 점술이 아니라 자연법칙과 사람 관계 등 여러 삶의 이치를 ‘학’과 ‘술’을 이용해 예측하는 것이다. <알림·1만7000원>

▲습관 혁명=강연자이자 자기 계발 전문가인 저자의 시간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다. 저자는 시간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록 시간은 관리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더라도, 우리는 분명 시간을 영원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굴복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만을 가지게 된다. 물론 시간 자체를 관리하지는 않는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것이다. <팬덤북스·1만3000원>

▲지구 어디쯤, 처음 만난 식탁=처음 만나 마주 앉아 함께하는 온 세계 식탁 여행. 대만의 여행가이자 작가인 장정광이 여행하는 방법은 다소 독특하다. 다소 위험하거나 대다수가 선호하지 않는 나라를 주로 찾아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한 끼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는 방식으로 여행을 한다. 서툰 스페인어를 구사하면서 같이 채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며 많은 사람들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들었던 내밀한 이야기를 끄집어 낸다. <생각정거장·1만5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감자가 뿔났다=시인이자 현직 교사인 이옥근의 두번째 동시집. 부부이자 동료 교사, 문학 동지이기도 한 동화작가 배순아의 그림이 잘 어우러진 동시집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 꼬물꼬물 작은 것에도 눈과 귀를 여는 어린이 마음이 72편의 동시 다양한 화장실 표식 디자인을 통해 ‘일상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교육·9500원>

▲예술가가 된 꼬마 아이들=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피카소까지 여러 예술가들의 솔직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동생에게 질투심을 가졌던 고희, 학교에 가기 싫어서 괴병을 부린 팝아트 선구자 앤디 워홀 등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이야기도 담겨 있다. <북멘토·전 2만7000원> ▲스토리텔링 초등 과학 교과서(전 2권)=현직 초등학교 과학 전담 박연미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의 눈



높이에 맞춘 과학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 과학책. 1권 물리 화학편, 2권 생물 지구과학편에는 ‘제비꼬리샘’과 여섯 악동들의 열 세 없는 수다 속에 호기심 어린 질문이 가득하다. <북멘토·전 2만7000원> ▲문신의 나라 무신의 나라=임금 옆에 찰싹 달라붙어 무소불위의 권세를 움켜쥔 문신의 아들 윤재, 하루종일 놀고 먹는 임금과 문신을 곁에서 보초나 서야 하는 무신의 아들 두남, 일터내내 빼 빠지게 일해서 지은 농사를 세금으로 다 빼앗기는 백정의 딸 다영, 고려 시대 최대 격변기의 한 가운데서 세 아기가 바라본 ‘무신정변’ 이야기로 담았다. <푸른숲주니어·1만1원>

주변의 공간·사물 속 디자인의 가치 찾기

보이지 않는 디자인

박현택 펴냄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 진짜 디자인이다. 훌륭한 디자인은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이끄는 것이다.’ 영국의 디자인 그룹 탠저린 대표 마틴 다비셔가 한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디자인’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기발한 것을 생각하기 쉽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박현택이 펴낸 ‘보이지 않는 디자인’은 주변의 공간과 사물 속에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가치를 찾는 책이다. 저자는 나무 의자, 쓰레받기, 계단 등

일상용품에서 박물관, 미술관, 추사, 백남준, 블랙 다이아몬드, 핀란드 가구에 이르기까지 평범함과 비범함을 오가는 스물 네가지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이발소마다 걸려 있던 ‘살이 그대로 속일지라도’라는 푸시킨의 시 구절과 밀레의 ‘만종’이나 ‘이삭 줍는 여인들’같은 그림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디자인’의 의미를 발견한다. 또 스프레이 접착제를 개발하다 실패

한 것을 종이에 적용해 발전시킨 ‘포스트잇’과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전 세계 다양한 화장실 표식 디자인을 통해 ‘일상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성은 외면한 채 유행처럼 번져 나가는 벽화마을의 문제점을 꼬집는 글도 눈에 띈다. 지난 2013년 출간됐던 ‘오래된 디자인’의 판형 등에 변화를 준 개정판도 함께 나왔다. 책에는 주먹도끼, 세한도 등 박물관 소장품부터 등잔, 절구 등 조상들이 사용했던 물건 등을 통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안그라픽스·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누,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